
성균관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 SURE!

2024학년도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정리본



회의 일시	2024. 7. 16. (화) 10:30
회의 장소	600주년기념관 6층 세미나실1
참 여 자	(총학생회) 제56대 총학생회 SURE! 양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학사정책국장, 학사정책국 차장 (학교 본부) 학생지원팀, 교무팀 행정 직원
논의 안건	성적 이의신청 기간 보장,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개선, 예비군 훈련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 공유,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 기타

논의 안건 1. 성적 이의신청 기간 실질적 보장

총학생회: 현재 성균관대학교는 교강사의 성적 입력 마감일과 학생의 성적 이의 신청 마감일이 동일함. 그로 인해 성적공시가 늦어질 경우,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총학생회 주도의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성적공시 지연 사례를 확인했음(학교 본부에 자료 전달 완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성적 입력 마감일 이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연장
- 성적공시 지연 사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늦게 입력하는 교강사에게 알람 전송
- 성적 이의신청 이후 교강사의 답변 입력 시 킹고엠 알람 혹은 문자 전송

학교 본부: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023학년도 2학기 학사과정 수업의 7.6%, 2024학년도 1학기 5.2% 강좌가 성적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음. 담당 교수님들과 단과대학 행정 부서의 도움으로 성적 미입력 강좌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성적 미입력 강좌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예정임.

첫 번째로 성적 입력 마감일 이후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연장 요청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경우 본교 모든 학생의 성적 확정이 지연되게 됨. 총학생회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나, 다른 학생들의 성적 확정도 늦어지게 따라 △취업자 등의 성적 증명서 제출, △졸업사정, △장학금 대상자 선정 등 학사 행정이 지연되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두 번째로 성적 입력을 지연하는 교강사에게 알람 전송 요청의 경우, 현재에도 학사 행정부서에서 문자, 킹고M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정을 안내하고 성적 입력을 독려하고 있음. 또한, 학생들의 성적 이의신청을 확인하지 않은 교수님들께도 지속적으로 이의신청 확인해 주시도록 킹고M 등을 통해 독려하고 있음.

세 번째로 성적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교수님께서 답변 시 학생들에게 킹고엠 알람 혹은 문자 전송을 요청하시는 것에 대해, 학교 본부에서도 학생들의 불편함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공감하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음.

논의 안건 2.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개선

총학생회: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위해 필수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마이크로디그리가 존재함. 하지만 그 중 일부 마이크로디그리는 계절학기 기간에만 개설하거나 1년 중 한 학기만 개설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본부에 요청함.

- 마이크로디그리 과목 개설 빈도 확대

학교 본부: 학교 본부에서 확인한 바로는 현재 마이크로디그리(이하 MD로 표기) 이수를 위해 필수 과목이 지정된 MD는 ‘의료 인공지능’ 뿐 나머지는 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일부 MD가 영역별로 특정 과목군을 이수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일부 과목(군)이 필수 과목처럼 보이는 경우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의료 인공지능 MD의 필수 과목이 한 학기에만 개설된 사례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이수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에 대해 공감하며, 해당 내용은 의료 인공지능 MD 주관 학과에 공유하여 필수과목 수업 확대 개설 등 학생들의 원활한 MD 이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권고할 예정임. 앞으로도 MD 이수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전달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음.

논의 안건 3. 예비군 훈련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 공유

총학생회: 지난 2024학년도 1학기 예비군 훈련기간 종료 이후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던 예비군 훈련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공유함.

학교 본부: 총학생회에서 예비군 훈련기간 학습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대상 강좌의 수업 운영을 확인하였음.

학교 본부에서는 예비군 훈련기간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대상 강좌는 의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선택지 중 최소 하나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예비군 훈련으로 참석하지 못한 일자의 강의 저장 콘텐츠 제공 △해당 일자의 수업 범위에 해당하는 온라인 콘텐츠 제공 △보강 진행 △해당 일자의 수업 범위에 해당하는 수업 자료 제공)

총학생회에서 조사한 사례의 경우, 해당 일자의 강의 저장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세 가지 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진행하여 학교 본부의 요청사항을 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음. 다만, 향후 담당 교수님들께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강의 저장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임.

앞으로도 총학생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수업 관련 사례를 공유하여 주시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논의 안건 4.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

총학생회: 제1차 교학 정기회의에 이어 본교 학생들의 대외적 학점 경쟁력 상승과 재수강 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을 요청함.

본교와 수도권 주요 대학의 상대평가 비율과 A학점 비율을 근거 자료(기준연도 2022학년도)를 제시하며, 본교의 규정상 상대평가 등급 비율은 수도권 주요 대학에 비해 높으나 실제 성적 분포 자료상으로는 본교의 A학점 비율은 타교에 비해 낮다는 것을 주장함.

사전에 진행된 제2차 교학 정기회의 설문조사 결과, 제시된 세 가지의 재수강 상한 학점 상향 조정안에 대해 3안(‘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모두 재수강 상한 학점을 A0로 상향하되, 동일 과목에 한해 삼수강 이상 시 최대 B+까지 취득 가능’)을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를 바탕으로 본교의 재수강 상한 학점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함.

학교 본부: 지난 1차 교학 정기회의 후 2024년 5월 초에 재수강 성적 등급 상한뿐만 아니라 본교의 전반적인 성적 제도 및 현황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음. 검토 결과, 2024학년도에는 성적 제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편은 없을 예정임.

현행 본교 규정의 학사과정 상대평가 등급별 상한 비율(A 등급 50%, A+B 등급 90%)은 경쟁 대학의 규정의 상대평가 등급별 상한 비율(대학별로 상이하나 약 A 등급 30~40%, A+B 등급 70% 수준)보다 높은 수준임.

재수강 성적 상한 등급 상향은 개별 안건 단위로 진행할 사항은 아니며, 상대평가 등급별 상한 비율, 절대평가 적용 강좌 기준 등 성적의 전반적인 정책과 함께 검토될 사항이라 판단됨.

논의 안건 5. 기타

1) 24-2학기 군복무학점 이수제 강화 진행상황 공유

학교 본부: 현재 학부대학에서 수요 검토 중.

2) 24-2학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관련 비전공 T/O 배정 관련 진행상황 공유

학교 본부: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의 비전공 T/O를 활용하는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 모든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과목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20%를 비전공 T/O로 할당할 것임. 원전공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강의의 전체 정원 자체를 늘릴 것을 교강사에 요청하고 일전에 총학생회에서 요청하신 잔여 비전공 T/O를 전공 T/O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임. 교과목별 구체적인 비율은 이후에 다시 공유해 드리겠음.